

5분 자유발언(우리의 자랑)

제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02. 7. 26. 금

정종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거창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덕유산, 금원산, 수승대를 배경으로 한 천혜의 산수경관과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증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생활하여 왔습니다만, 지금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산수경관과 온천을 자원으로 한 관광개발은 우리 거창군의 당면과제로서 지속적인 연구 노력을 하여 관광휴양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도시로서의 위상관리는 현안문제로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성고등학교와 거창고등학교

는 경남도 교육청에 자율학교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탈락되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탈락사유를 “자율학교 지정 신청은 농어촌 정원미달 학교가 대상”이라며 “거창고는 미달학교도 아니며 시설도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의 교육예산은 도민들의 자녀만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등 상식 이하의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며 굳이 자율학교를 원한다면, 자립형 사립학교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여 대성고 동문들의 예민한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는데, 이러한 사유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분통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육도시로서의 우리의 위상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성고, 거창고의 설립자와 재단관계자들의 확고한 교육철학과 교사들의 2세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수많은 동문들과 학부모, 지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전국적인 명문고교로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영광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화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율학교 지정의 신청과 탈락”은 학교 관계자들과 대부분 동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겨

주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수 차에 걸쳐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대고, 거고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
로서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의 무지를 성토만 하고
학교관계자들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준정 차원에서
접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
다.

첫째, “자립학교로의 지정 운영”이 명문고교로서의
위상을 지켜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인지, 준민의 뜻을 물
어야 할 것이며,

둘째, 최선이라면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지를 알고 신입생 모집 학사일정에 맞추어 서둘러 대처
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앞으로도 닦쳐올 수많은 교육문제들을 의논하
고 대처하며, 교육도시로서의 명성과 위상을 지켜 가기
위해, 지역 차원의 교육전담 기구나 연구단체가 설치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교육도시로서의 명성과 위상은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우리 거창만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이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군수를 중심으로 7만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라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거창을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우리 모두는 거창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